

그림 2-7. DS중학교 1,2학기 사전/사후변화

그림 2-8. MZ중학교 1,2학기 사전/사후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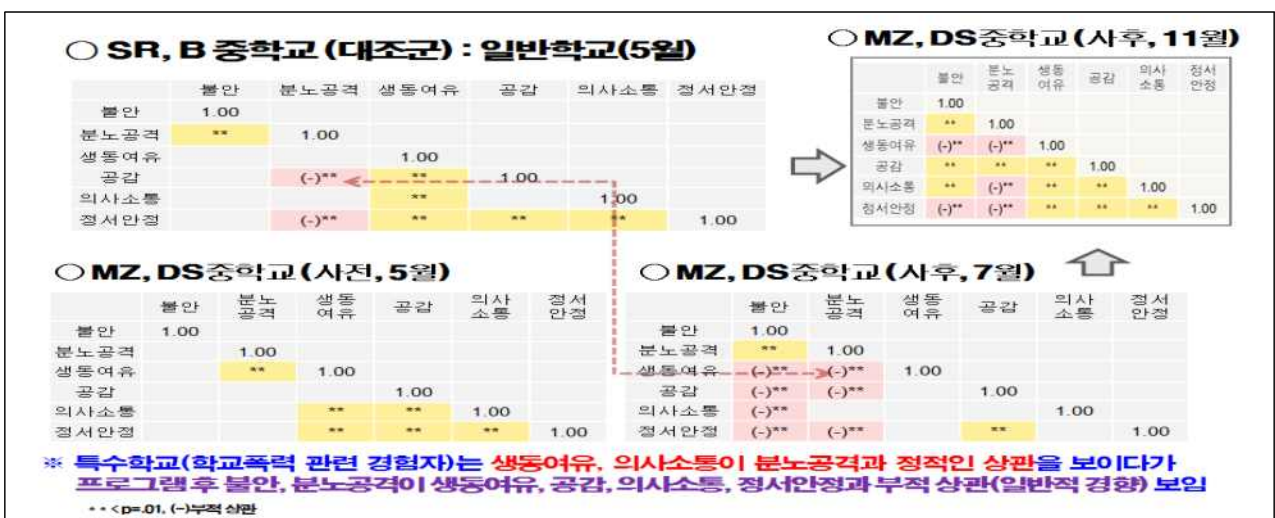
프로그램 투입효과를 비교(B, SR 중학교)해 보면 1학기 프로그램 투입이 없을 때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2학기 프로그램 투입 시 의사소통, 불안, 분노공격 증가하는 효과가 표 2-9, 표 2-10과 같이 나타났다.



그림 2-9. B중학교 변화 비교

그림 2-10. SR중학교 변화 비교

정서적 변화 관련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화를 알기 위해서, 일반학교인 SR, B 중학교의 대조군에서 정서적 변화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있는 MZ 중학교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. 그림 2-11과 같이 일반학교는 정서안정과 의사소통이 정적인 상관, 분노공격이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, 특수학교(학교폭력 관련 경험자)는 생동여유, 의사소통이 분노공격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다가 프로그램 후 불안, 분노공격이 생동여유, 공감, 의사소통, 정서안정과 부적 상관(일반적 경향) 보였다. 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서반응 패턴이 일반(정상)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

<그림2-11. 프로그램을 투입하지 않은 일반학교 학생과 프로그램을 투입한 특수학교의 전후 정서적 관련지표(변수)의 상관관계 비교>

DS, MZ 중학교(1학기 10회 프로그램 완료 후) 학생의 변화사례(그림 2-12, 그림 2-13, 그림